

기록열람실 장서 구성 및 수집 기준

1 장서 구성 기준

1. 방침 목적

- 서울학 및 기록학 중심 전문 장서 구축
-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서 구성
- 자료 선택과 수집에 대한 기준 제시
- 배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

2. 장서 구성 기본원칙

- 서울기록원의 목적과 목표, 역할 수행에 부합하는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.
-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, 기타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와 국내·외에서 발간된 서울시에 관한 자료를 최우선으로 수집한다.
- 기록학 및 문헌정보학에 관한 자료는 우선으로 수집한다.
- 서울시민 정보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장서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일반 교양자료에서부터 전문성 있는 학술자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수집한다.

3. 세부 장서 구성 원칙

- 서울시 행정과 관련된 자료는 기증을 통해 구성하며, 그 외 서울과 관련된 주제의 일반자료는 구입을 통해 수집한다.
- 정보의 최신성을 위하여 신간자료를 우선으로 선정한다. 다만, 고전으로 인정된 자료와 우선 수집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발행 년도와 관계없이 수집한다.
- 어린이 자료는 초등교육의 목표와 어린이 정서에 따라 자료를 선정한다.
- 자료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소장 가치가 없는 자료는 선정에서 제외한다.

2

장서 수집 기준

1. 장서 수집 기본원칙

- 자료는 1종 1권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용빈도가 높은 도서나 전시 등 행사용 자료 및 기타 자료의 보존과 이용을 위해 복본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2권 이내로 복본을 구비할 수 있다.
- 희망도서의 경우 신속한 제공을 위해 「희망도서 선정 제외 기준」에 따라 선별하여 우선 구입한다. 이용자가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 권수는 1인 1년 10권 또는 1월 2권 이내로 한다.

2. 세부 장서 수집 원칙

- 매월 출판 현황을 조사하여 발행 후 늦지 않게 수집한다.
- 국가 및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에 관한 도서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.
- 소장하고 있는 참고도서의 개정판은 되도록 수집하여 최신성을 유지한다.
- 사회경제적 이유로 일반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를 적극 수집한다.
- 사상과 종교, 정치적 입장, 개인적 이해관계 등을 배제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선정한다.
- 서울학 자료는 서울을 주제로 하는 모든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한다.
- 기록학 자료는 기록과 관련한 학술 및 정책 자료, 공공 기록 및 민간 기록을 대상으로 수집한다.

3

장서 구성 배제 기준

1. 장서 구성 배제 기본원칙

- 형태상 열람실에서 관리가 어렵고 서비스와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
- 각종 시험을 위한 수험서나 어학용 교재, 만화, 문제집, 로맨스 소설, 선정적인 자료, 무협지
- 영리 목적·정치 목적 자료와 정서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자료

- 가족과 사회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보편적인 일반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자료
-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 및 사회의 존립 체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자료
- 저속한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자료

2. 희망도서 선정 제외 기준

- 기소장 자료, 구입 중 또는 정리 중에 있는 자료
- 고가도서(5만원 이상)와 외국도서, 3권을 초과하는 시리즈 또는 전집 도서
- 스프링 제본, 낱장자료, 필사책, 색칠 공부 등 관리가 어려운 형태의 자료
- 간행되지 않은 도서, 비매품, 품질이나 절판 및 유사 도서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경우
- 신판이 발간되었음에도 구판을 신청한 경우
- 문제집과 수험서, 중고생 참고서, 작품성이 낮은 판타지, 로맨스, 선정적인 자료, 만화류
- 영리 목적·정치 목적 자료와 미풍양속이나 정서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자료